

무안의 마을조사와 글로컬

문화향기

박관서
시인
무안학연구소장



“멋져요.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이리 따뜻하게 영기는 모습이라니요~^^”

무안마을조사연구원 간의 소통을 위한 SNS 채팅방에 이와 같은 위무와 격려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4월경부터 준비한 2024 무안군 마을조사 및 아카이브사업의 현장조사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무안군의 각종 마을문화자원에 대한 온라인 아카이브 및 지역학 연구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재작년부터 무안문화원에서 시작한 무안군의 마을조사 사업이, 작년에 무안 일로읍과 몽탄면을 마치고 올해는 청계면과 해제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래 전남지역의 각 문화원 중심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시군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무안문화원에서는 무안 관내 9개 읍·면의 마을조사를 매년 2~3개 읍·면씩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

약 10여 년 전에 진행된 기존 마을조사 이후로 변화된 마을환경을 담아냄은 물론 문화콘텐츠로의 활용과 글로컬로 대변되는 마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과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됐다. 그리해 마을조사의 결과를 단순한 결과물 책자나 인터넷 정보로 제공하

는 정도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마을박물관 내지는 마을아카이브 자료센터로 구성한 물론 지난해에 구성된 무안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마을조사는 무엇보다도 마을조사자를 단순히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외부 용역이나 연구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안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해설사와 황도골역사문화탐험대 등 오랜 시간을 열정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각종 활동을 해온 지역주민 8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하지만 이를 총괄해 진행하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맡은 필자의 입장에서 예전 마을조사자료의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자료 조사와 이를 배경으로 진행해야 할 현장조사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이후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집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의 구성과 지역학 담론의 기틀로 진행토록 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로컬문화의 주인이자 실행자가 되어야 할 무안 시민인문학자의 양성을 위한 자질의 향상과 역할능력의 증대라는 ‘뜨거운 주문’이 더해져서,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직접 하는 일보다 남의 손으로 하도록 하는 일이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반도 서남해를 매듭지으며 뻗어 내린 승달산의 품에 안긴 청계면 사마리의 마을회관에서, 환갑을 지난 두분의 여성 마을조사자가 첫 조사를 나가

서 마을의 노인들과 얼크러져 나누는 이야기의 속내가 환히 드러나는 활동사진은 그대로 아름다운 오늘의 마을 풍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대학에서까지 글로컬을 내세운다. 서남해의 각 대학들도 로컬콘텐츠 중심의 문화예술과 관광 등을 목표로 글로컬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듯이 글로컬(glocal)이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추구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동시에 추구되는 방식이라는 단순한 융합으로서의 글로컬 개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별다른 준비 없이 개념과 구호에 급급해 급속히 진행했던 지난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IMF와 같은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아픈 경험이 있다. 세계화는 우선 단단한 국가 단위의 공동체적 인식과 기틀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아프게 알았다.

따라서, 현재 운위되는 글로컬이라는 실행개념 역시 글로컬 이전에 이를 선도하거나 최소한 세계화에 걸맞은 경제, 사회, 제도적 기반은 물론 이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적 자질의 향상과 같은 지역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또는 도시와 지역이라는 근대적 상대개념에서 로컬이라는 수평적인 생태구체로 거듭나야 하는 인식과 자존감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먼저 일궈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거칠게나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무안의 마을조사는 그러한 글로컬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社說

고령 운전자 면허제도 보완책 필요하다

늘어나는 사고율 무시해선 안돼

1일 오후, 68세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에서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1974년 면허를 취득한 ‘베테랑’이라고 한다. 사고도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 3239건에서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으로 전년에 비해 184명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10명이 증가했다. 초고령사회,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늘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선 안될 상황

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청력,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겪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변화는 운전 중 요구되는 빠른 판단력과 반응력에 영향을 미쳐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여러 질병을 앓는 고령자의 특성상 약물 복용에 의한 운전 능력 저하도 감안해야 한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가 교통 사고 현장에서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제한해서는 안되겠지만 신체변화를 감안한 면허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령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일률적인 적성검사를 넘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더 세밀하게 파악해 차등적인 면허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절박함 부족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저출산 극복위해 지원 늘려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임부부들은 임신하기까지 각종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포기하고 임신 중단을 할 경우 그동안 지원된 지원금이 반환해야 한다.

광주지역 출산율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46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24명) 감소했다. 올해 1~4월 합계 출생아 수는 총 2052명으로 전년비 9.9%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지역 난임 시술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시술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살펴보면, 광주 난임 시술 환자·시술비는 △2018년 6162명·75억4354만원 △2019년 6042명·80억2941만원 △2020년 6228명·91억5225만원 △2021년 6487명·101억9061만원이다.

문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임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에 총 21회에 걸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광주시 역시 4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부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 외에 각종 약물·검사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인공수정 3번과 시험관 시술 2번을 시도해 임신 4개월차에 접어들어 한 임신부는 검사비용에만 200만 원 가량을 부담했다고 한다. 난임부부가 임신 시도를 중단했을 때는 그동안 받은 의료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올해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절박함이 부족해 보이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출산장려금을 늘려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일색에 난임부부만 외면받고 있는 느낌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임신 성공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현지시간)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 해변에서 젊은이들이 허리케인 베릴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4등급 허리케인 베릴이 바베이도스에 상륙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고 공항이 폐쇄됐다. 바베이도스는 카리브해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로 민주공화국이다. AP/뉴스시

서석대



신라시대 학자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은 문집 ‘계원필경(桂苑筆耕)’을 펴냈다. 최치원은 868년에 12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건너가 과거에 급제하고, 관료 생활을 거쳐 28세가 되던 884년에 신라로 돌아와 집필한 여러 시문 작품을 엮어 886년 1월에 헌강왕(憲康王)에게 헌상했다. 최치원은 이 문집을 왕에게 바치고, 관직에 중용되기를 구했다. ‘계원필경’의 필경(筆耕)은 용막에 거주하며 문필로 먹고 살았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당대 최고의 사상가인 최치원도 손 글씨로 관

‘희귀직업’ 필경사

직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속 활판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인 15세기 중엽 이전은 필경사(筆耕士)의 전성시대였다. 필경사는 ‘붓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문자의 발명 이후 생겨난 인류 최초의 사무직으로 통한다.

조선 시대에는 필경사에 해당하는 사자관(寫字官)이 공문서를 작성했다. 명필 한석봉이 오랫동안 맡았던 관직이다. 사자관은 승문원의 사자관청에 소속돼 외교 문서와 왕실 기록물 작성을 담당했다. 조선 초에는 공문서 작성 직책이 없었고 문신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자가 맡았으나 선조 때부터 사대부와 서인을 막론하고 사자관으로 삼았다고 이극익의 ‘연려실기술’은 전한다.

인쇄기술 발달과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현대사회에서 필경사는 흔히 볼 수 없는 직종이다. 최근 정부가 필경사를 임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1962년 첫 임명 이후 ‘5대 필경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가장 희귀한 직군으로 꼽힌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3대 필경사였던 김이중 사무관이 지난해 초 퇴직하면서 같은 해 2월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선발을 보류한 바 있다. 구인난(求人難)을 겪던 필경사가 거의 1년 5개월 만에 임명된 셈이다. 필경사는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소

속이다.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운영·관리 등이 주요 업무, 채용 자격으로 서예 관련 석·박사 학위 또는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을 요구한다.

디지털 시대에도 필경사의 손 글씨는 큰 인기라고 한다. 공직 생활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임명장을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쇄기로 때울 수 없다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붓을 들어본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오직 컴퓨터 자판기 ‘타자수’로 실력을 따지는 요즘,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손 글씨가 더욱 귀한 세상이다. ‘희귀직업’ 필경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